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성호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2:11-14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복음의 진리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5/31/26	6/7/26
봄소풍	장헬렌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자유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복 받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유대교로부터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기독교 안에서는 자신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이미지로 인해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무려 13년동안 칩거생활에 들어간 바울은 짧은 날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무효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13년동안 그에게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뒤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복음만을 선포했기에, 그에 반하는 다른 복음을 철저히 거 비판하고 성도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뒤를 따라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한 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따라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것과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분명한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순식간에 다른 복음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상식과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다른복음이 그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종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결코 인간의 해방이나 방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고 깊은 울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시 무언가 통제받고 구속받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라는 감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 안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의 입술에서 사람의 걸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모든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유란, 나만을 위해 살던 죄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임을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